

東武 李濟馬의 家系와 生涯에 대한 研究

朴性植*

I. 緒 論

한국 한의학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東武 李濟馬(1937-1900)는 조선말기의 철학자이면서 의학자로서 그의 사상은 주로 格致黨¹⁾과 東醫壽世保元²⁾에 잘 나타나 있다. 이제마는 天人性命의 이론적 체계를 바탕으로 四象人 臟腑性理³⁾의 특징을 발견하여 이를 의학에 적용함으로써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새로운 발전을 가져 왔으며,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養生의 方法論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四象醫學의 原典인 동의수세보원이 간행된 이후 臨床的 施術이 널리 행해지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상의학의 臨床的 效用性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추세이다.

그 동안 한의학계에서는 많은 임상적 연구와 더불어 이제마의 哲學思想과 醫學思想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의학적, 사회적 관심이 날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동무 이제마의 생애에 대한 연구는 전기문의 형식이나 일화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⁴⁾, 그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도 적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⁵⁾ 등에 실린 이제마에 대한 기록도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에 저자는 이제마의 家系와, 일상적인 행적, 생애를 정확히 정리함으로써 사상의학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나 지지뿐만 아니라 신비주의적 경향을 경계하고, 이제마의 철학적·의학적 사상을 파악하고 사상의학을 연구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새로 자료를 찾아 東武의 家系와 生涯를 정리할 수 있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東武 李濟馬의 家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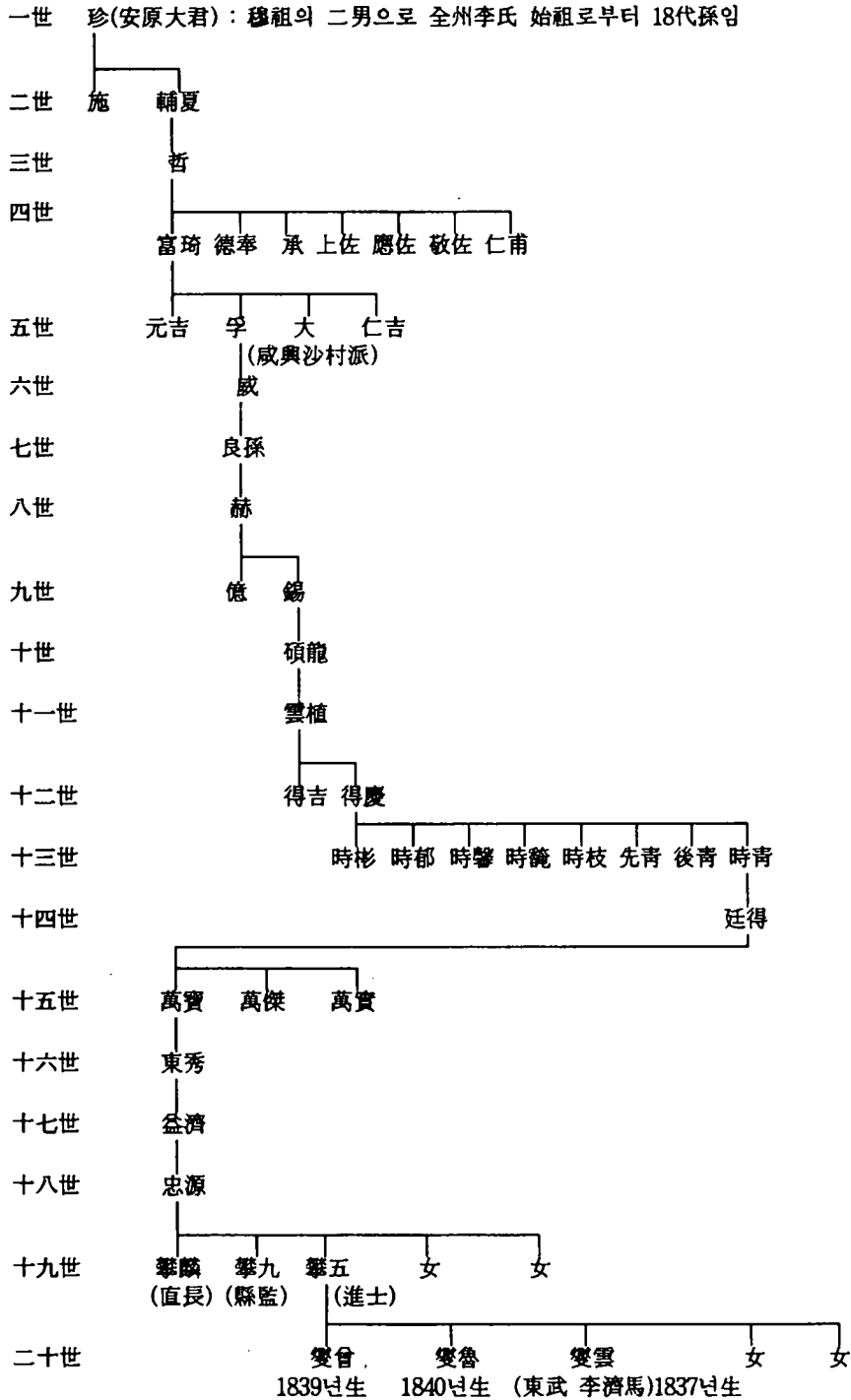
1. 李濟馬의 系譜

李濟馬의 本貫은 全州李氏로 安原大君(珍)⁶⁾의 19代孫⁷⁾이다. 안원대군의 4代孫인 孚부터는 威興沙村派⁸⁾라 불리어진다. 이제마의 할아버지는 忠源이며, 아버지는 攀五는 忠源의 셋째 아들로 進士를 지냈다. 큰아버지 攀麟이 直長을 지냈으며 작은아버지 攀九는 縣監을 지냈다.

이제마의 계보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전해지는 대부분의 안원대군파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後孫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⁹⁾. 하지만 이제마 족보의 사본¹⁰⁾(이하 '족보사본'이라 칭한다)을 경희대학교 송일병 교수님이 작고하신 이진운¹¹⁾씨로부터 받아 소장하고 있지만 계통도가 없는 일부분만 전해지고 있다. 이에 이제마의 계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과

(그림 1) 李濟馬의 系譜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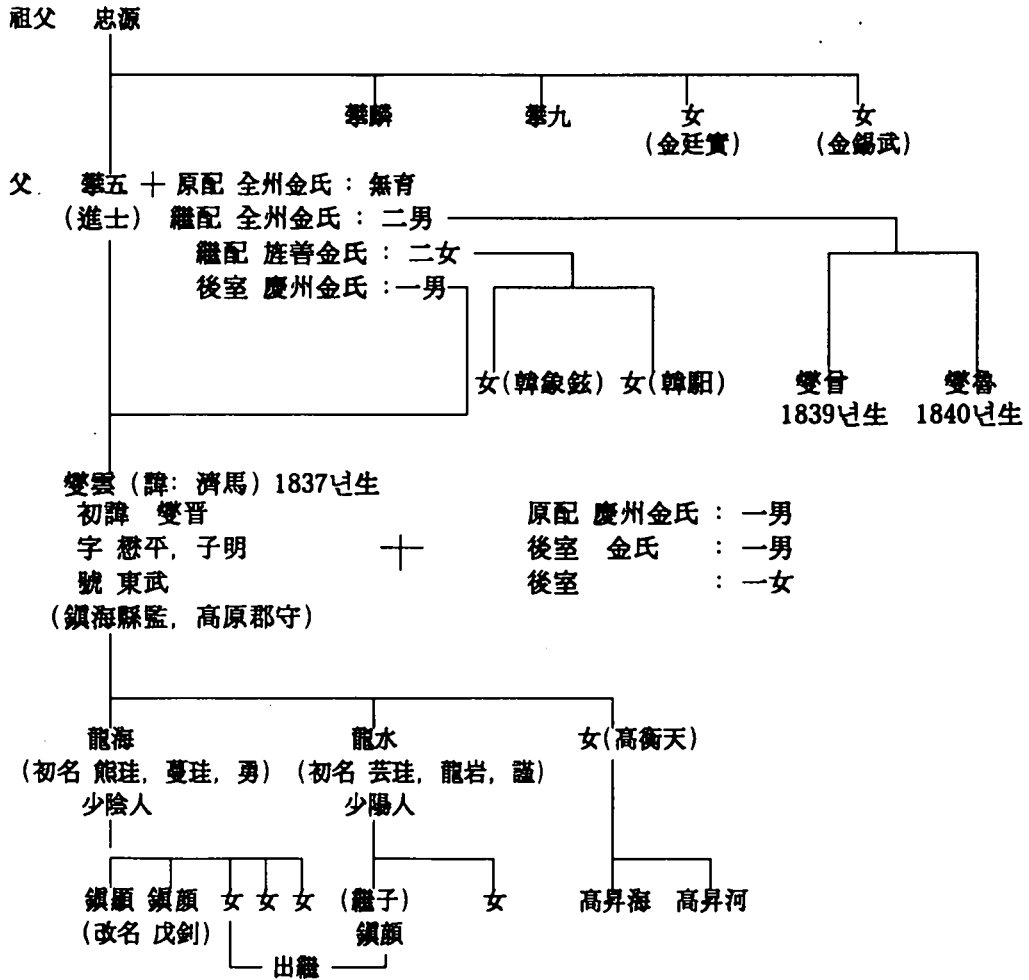
보를 수소문 하던 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全州李氏 安原大君派 璿原續譜¹²⁾(이하 '전주이씨 족보'라 칭한다)에서 이제마의 계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제마 계보도는 주로 이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며, 편의상 딸들은 東武의 아버지 代부터만 기록했다.(그림 1)

2. 李濟馬의 家族關係

이제마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다만 할아버지가 忠源이고 아

버지 攀五가 進士를 지냈으며, 이제마는 그의 長男이자 庶子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주모의 딸로 인물이 박색이며 사람됨이 변변치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내용의 전부이다.¹³⁾ 저자는 이제마의 족보사본과 전주이씨 족보, 東武遺稿¹⁴⁾등을 중심으로 이제마의 가족 관계를 정리하였다.(그림 2)할아버지 忠源은 正祖 丁酉年(1789년) 十二月에 태어나 憲宗 己酉年(1849년) 十二月에 61세로 사망하였는데 이제마 나이 13세 때이다. 그는 일생 동안 특별히 벼슬한 기록은 없다.¹⁵⁾

(그림 2) 東武 李濟馬의 家族關係圖



아버지 攀五는 忠源의 셋째아들로 純祖 壬申年(1812년) 正月에 태어나 辛卯年(1831년) 20세 때 司馬試에 합격하였다. 丁酉年(1837년) 26세 때 이제마를 낳았고, 이제마 나이 13세 때인 憲宗 己酉年(1849년) 四月에 38세로 세상을 마쳤다.

어머니에 관해서도 자료가 자세히 전해지지 않으나 아버지 攀五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다. 攀五의 원래 부인은 全州金氏 金基勉의 딸로 辛未年(1811년)에 태어나 乙未年(1895년)에 사망하였다. 그런데 原配에서는 소생이 없어 繼配로 全州金氏 金致珩의 딸과의 사이에서 二男을 두었다. 또 繼配로 旌善金氏 金用빈의 딸과의 사이에서 二女를 두었다. 이어서 後室로 慶州金氏(金宗기의 딸이자 金元江의 孫女임)와의 사이에서 一男을 두었다. 16) 洪17) 등은 이제마가 庶子라고 밝히고 있으며, 전주이씨 족보에서도 먼저 출생한 이제마가 長男(1837년 출생)임이 분명한데도 雙魯(1839년 출생) 雙魯(1840년 출생)의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後室所生이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이를 근거로 보면 이제마의 生母는 後室로 삼은 慶州

金氏로 보이거나 출생시기나 사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이제마가 1894(甲午)년에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한 이후 1895(乙未)년에 어머니 병환으로 인해 함흥으로 하향한 것도 生母의 병환이 아니라 嫡母(全州金氏 金基勉의 딸)의 병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8)

이제마의 婦人은 3명으로 보인다. 원래 부인은 慶州 金氏인 掌令 金奎衡의 딸로 戊戌年(1938년)에 태어나 己未年(1919년)에 82세로 사망하였는데 一男을 두었고, 後室 金氏에서 一男을 두었으며, 姓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後室에서도 一女를 두었다.19)

따라서 이제마의 자녀는 二男一女인데 세 사람 모두 어머니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長男 龍海는 동무 23세 때인 己未年(1859년)에 태어나 壬戌年(1922년)에 64세로 세상을 마쳤으며20) 初名은 熊珪, 蔓珪, 勇등이며 號는 竹心이며 슬하에 二男 三女를 두었다. 次男 龍水는 東武 36세 때인 壬申年(1872년)에 태어나 丙子年(1936년)에 65세로 사망하였으며 初名은 芸珪, 龍岩, 謹등이고 슬하에 一

(표 1) 李濟馬의 出生

홍순용 : 동무의 생애와 사상	1836년(憲宗3年, 丁酉) 陰 3월 19일 오시 함흥군 천서면에서 태어남.
이능화 : 조선명인전	李朝憲宗四年(戊戌)에 威興南里에서 출생.
이을호 : 사상설비판 대한한의학회보 13호	함흥태생의 이제마(1836-1900)
동무유고	憲宗丁酉 三月十九日甲申午時
족보사본	憲宗丁酉 三月十九日生
정우열 : 동무 이제마의 의학사상 한국민족문화백과대사전 한국인명대사전	이제마(1838-1900)
이이화 : 이야기 인물한국사1 이을호 : 동무 사상설 여강출판사편 : 동의수세보원	이제마(1837-1900)

女를 두었다. 다만 족보에서는 龍海의 次男 嶺顏이 繼子되어 龍水의 代를 이어가고 있다. 東武의 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으며 濟州高氏인 高衡天에게 시집가서 高昇海 高昇河 두 자녀를 두었다. 東武遺稿 중의 教子平生箴²¹⁾에 따르면 이제마는 그의 長男을 少陰人으로, 次男을 少陽人으로 판정하고 修養法을 일러주고 있다.

되어 있고, 號는 東武, 字는 懋平 또는 子明이고, 初諱는 濟馬라 하였다. 이제마의 출생에 따른 逸話는 흥²²⁾이 가장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이제마의 유년시절에 대해서는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 어려서부터 글을 배우고 다양한 서적을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말타기와 활쏘기 등 무예 익히기를 좋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Ⅲ. 東武 李濟馬의 生涯

2. 李濟馬의 家出과 遊覽

1. 李濟馬의 出生과 幼年生活

李濟馬의 출생 시기에 대해서는 (표 1)과 같이 여러 異見이 있지만 1837년(憲宗3년, 丁酉年) 陰三月 十九日 咸慶道 咸興에서 進士 攀五의 長男이자 庶子로 태어났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에게는 어려서부터 여러 종류의 이름이 있었는데 전주이씨 족보에는 이름이 雙雲 또는 雙岬으로

이제마의 가출에 관해서는 여러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가출 시기와 동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그 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더욱 불분명하다.(표 3) 東武遺稿의 各道風俗²³⁾에서는 峇人, 北人, 畿人, 涇人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더불어 湖南俗, 湖西俗, 東俗, 海俗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또한 遊蹟²⁴⁾에서는 頭滿江 주변의 상황과 당시 洋人들의 通信수단과 大火炮에 대한

(표 2) 李濟馬의 幼年生活

홍순용 : 동무의 생애와 사상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며 천품이 쾌활하고 용감했다. 일곱살 때 伯父 直長公에게 글을 배우는데 총명하였고 글 읽는 일보다 무예를 좋아했다. 열세살 때 鄉試에서 장원했다.
이능화 : 조선명인전	十歲에 文理를 통하여 書庫에 나아가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經史와 子集을 모두 통달하였는데 그중에서 周易을 더욱 좋아해서서 그 奧義를 연구하시기에 몰두하였다.
이이화 : 이야기 인물한국사1	어릴적부터 글을 배웠으나 말타기와 활쏘기에 더 재미를 붙이고 있었다.
동무유고	自幼聰明
최남선 : 시문독본	幼時로부터 志概 이상하여 七歲時에 祖父로부터 通鑑節要를 배웠고, 書を 讀하매 沈潛反覆하여 義理 兩명한 후에 己하며, 周易과 諸子百家, 兵書를 좋아했다.
한국민족문화백과대사전	어려서부터 비범한 재질을 발휘하여 經史子集 뿐만 아니라 의약과 卜筮에도 능통하였다. 평소부터 병법을 좋아하여 무인이 되기를 원하여 호를 동무라고까지 지었다.

견문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이제마가 全國各地와 滿洲, 蘇聯 등지로 유람하면서 견문을 넓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家出動機에 대해서 저자의 견해는 다르다. 홍25)이 말하는 것처럼 동무가 救國의 뜻으로 가출했다기 보다는, 서자라는 신분적 제약과 서복인 차별이라는 조선 인사정책의 제약을 지닌 동무에게는 가족이나 사회환경이 불만족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전주이씨 족보의 기록에 따르면 동무의 나이 13세 때 자신을 보살피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26). 따라서 이제마의 家出動機는 사춘기 소년의 정신적 충격과 주변환경에 대한 불만이 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家出時期도 1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李濟馬의 學習과 師承關係

산재되어 있는 이제마의 학습에 대한 기록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李濟馬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글을 읽기 시작하여 7세 때 伯父로부터 通史를 배웠으며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했다. 周易과 諸子百家 및 兵書를 섭렵하였고, 10세에 文理를 통하여 經史와 子集을 통달하였다. 13세 경에 가출하여 전국 각지를 유람하였고 특히 만주와 소련 등지로 轉行하다가 20세 경에 義州 富人 洪草堂의 書樓에서 內外의 珍書를 博覽하였다.27)

30세 前後에 威興에서 定平으로 가는 客舍에서 芸菴 韓錫地가 著述한 '明善錄'을 얻었으며, 그후 그를 매우 尊敬하여 "芸菴은 朝鮮의 第一人者"라 稱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이제마는 全南 長城에서

(표 3) 李濟馬의 家出과 遊覽

홍순용 : 동무의 생애와 사상	열세살 때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 모든 부조리한 환경 속에서 백안시하는 울분을 참을 길이 없고, 또 국가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이때에 이를 묵과할 수 없어 분연히 집을 떠난 것이다. 동무의 젊은 시절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며 단지 애국 정신이 불타고 있었던 것만은 알 수 있다.
이능화 : 조선명인전	선생의 나이 二十이 됨에 생각한 바 있어서 家財를 기우려 널리 貧民을 救濟하고 또는 朝鮮의 山川과 人物을 구경하던 중 那終에는 滿洲까지 가서 두루 山川을 구경한 바 있었다.
최남선 : 시문독본	弱冠에 父業을 繼하여 家財를 散하여 貧窮을 濟하고 四方에 周遊하여 風土와 人物을 歷覽하다가 ... 滿洲 烏蘇利 等地로 轉行하여 域外의 民俗를 周察하고 概然하여 曰하되 東方의 大事局이 此에서 開하리라
이이화 : 이야기 인물한국사	열다섯의 나이에 표연히 고향을 등졌다. 그리고 이곳 저곳을 떠돌며 방랑생활을 시작했다. 4-5년 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자기 몫의 재산을 모조리 빈민들에게 나누어주고 다시 집을 나섰다. 그는 만주로 건너가 떠돌다가 의주의 부호 홍씨 집에 기거했다.
박석연 : 동의사상대전 동무공의 일화	18세 때 소련을 여행했다.

제자를 기르던 蘆沙 奇正鎭을 만나 학문을 익혔다고 한다.²⁸⁾

東武遺稿의 辛巳五月元山港問答²⁹⁾에는 이제마가 日人들과 대화하면서 견문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東武의 학문에 있어 특별한 師承關係를 증명할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4. 李濟馬의 官職

이제마의 관직에 대해서도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다(표 4). 이에 저자는 그 동안의 기록과 족보사본 및 東武遺稿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이제마는 고향을 등지고 전국의 산천과 인물을 구경하면서 경향 각지를 다니다가 서울에 머무름 때는 武衛都統使란 벼슬을 가진 金箕錫³⁰⁾과 친교가 있었다. 39세때(乙亥年, 1875년)武科에 등용되

고 武衛都統使 金箕錫의 천거로 40세(丙子年, 1876년)에 武衛別選軍官으로 入衛하여 武衛將軍을 거쳐, 50세(丙戌年, 1886년)에 鎭海縣監에 제수되었고 54세(庚寅年, 1890년)에 遞任 上京하였다. 그 후 乙未事變이 일어난 이듬해 즉 1896년(丙申年)에 강원도 평강진 召募軍官이었던 崔文煥이란 자가 일으킨 혼란을 진압한 공로로 正三品 通政大夫 宣諭委員에 제수되고 이듬해(1897, 丁酉年) 高原郡守로 임명되었다가 일년 후에 모든 官職에서 물러났다.

5. 崔文煥의 亂과 李濟馬

丙申年(1896年) 咸興지방에 혼란을 야기한 崔文煥을 사로잡은 공로로 李濟馬는 후에 高原郡守로 임명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제마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崔文煥이란 사람이 일으킨 亂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

(표 4) 李濟馬의 官職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88년(고종25)부터 1889년 한때 군관직을 맡기도 하였으나 곧 사퇴하고, 1892년 진해현감에 임명. 1893년 7월 진해현감을 사직하고 서울로 돌아옴. 1896년 함흥에서 일어났던 崔文煥의 亂을 평정한 공으로 고원군수에 추천되었으나 끝내 부임하지 않았다.
홍순용 : 동무의 생애와 사상	金箕錫의 천거로 병술년(1886,50세)에 別選武科에 등용, 武衛將을 거쳐 鎭海縣監을 제수하였고 겸하여 兵馬節度使에 임명되었다. 그 때에 나이 50이요 고종23년이였다. 丙申年 崔文煥의 亂을 진압한 공으로 正三品 通政大夫 宣諭委員을 제수하였고 이듬해 丁酉年에 高原郡守로 轉任하였다가 1년 후에 모든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이화 : 이야기 인물한국사1	서울의 무장 김기석의 식객노릇을 하다가 선살의 나이에 무위장 벼슬을 얻었고, 곧이어 진해현감, 병마절제사 같은 벼슬자리에 앉았다. 1895년 의병봉기한 최문환을 잡은 공으로 함흥관찰사 대리가 되었고 이듬해 고원군수가 되었다.
이능화 : 조선명인전	高宗時에 將臣金基錫이 추천하였다. 壬申癸巳年頃에 鎭海縣監에 임명 됨. 崔文煥의 亂을 평정하여 高原郡守를 추천 받았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는 것이 필요하다. 당시 독립신문³¹⁾에서도 이와 관계된 기사를 실고 있다. 흥³²⁾ 등은 崔文煥이 觀察使代理 陸裕信을 살해하고 亂動을 유발한 匪魁로 취급하고 있으나 이³³⁾ 등은 崔文煥이 閔龍鎭 휘하의 義兵將으로 인정하여 이제마를 의병장을 체포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한 때 중앙일간지³⁴⁾에서는 李濟馬가 威鏡道 義兵將 崔文煥을 체포하여 옥살이시킨 의병 탄압 인물임을 주장하여 1984년 10월에 정부가 국민의 師表로 선정한 한국 문화예술선현 50인의 한사람으로 李濟馬가 선정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이 달의 문화인물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제마를 1996년 12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³⁵⁾

6. 李濟馬의 醫藥經驗

李濟馬의 一生 동안에 醫藥에 대한 經驗이 제일 처음으로 확인되는 것은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 治驗例에 나타나는 乙亥年(1875년) 清明節때 少陽人에게 六味湯과 白虎湯을 주어 치료하는 내용이다³⁶⁾. 이 때가 바로 39세 때이며, 아직은 경험이 未熟하다고 이제마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후 46세(壬午年, 1882年) 때 쓴 教子平生箴을 보면 勇(少陰)과 謹(少陽)의 두 아들에게 각각 急喜之心과 急哀之心을 警戒할 것과 酒色에 대한 警戒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아 체질에 따른 養生法은 이미 터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東醫壽世保元 太陽人病論³⁷⁾에서 李濟馬는 자기 자신이 太陽人으로 일찍이 噎膈病을 얻어 6-7년간 嘔吐涎沫하였는데 수십 년 동안 攝身함으로 인해 다행히도 夭折을 면했다고 하였다. 東醫壽世保元 太陽人病論은 58세 때인 甲午年(1894) 58세

때 쓴 것이므로 수십 년 전부터 攝身했다면 동의 수세보원을 쓰기 이전부터 자신의 병을 알고 太陽人의 攝生法을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甲午年(1894)에 李濟馬는 서울의 李能和 집에 머무르면서 松葉을 씹거나 乾柿와 蕎麥麵으로 자신의 병을 관리하고, 李能和의 눈병을 滑石과 石膏로 치료하도록 했다고 하며³⁸⁾, 평소 식생활에서도 잡곡을 위주로 하였다고 한다.³⁹⁾

李濟馬는 사람의 체질을 알기 위하여 처녀의 웃고름을 풀어 본다든지, 장작을 나르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本性을 알고자 했으며⁴⁰⁾, 崔麟⁴¹⁾은 그의 自敘傳에서 자신의 나이 21세 때⁴²⁾ 이제마에게서 身病을 치료했는데 먼저 맥을 보고 다음엔 수족과 피부를 만져 본 후 종이와 붓으로 글을 쓰게 한 다음 장작개비를 운반하게 하였다. 그 후에 少陰人 香附子八物湯의 처방을 내리고 訓話를 해주셨다고 하였다.⁴³⁾ 이제마는 末년에 威興 萬歲橋 부근에서 保元局이라는 韓醫局⁴⁴⁾을 경영하였으며 후에 둘째 아들 龍水가 이어 받아 경영했다고 한다.⁴⁵⁾

그리고 東醫壽世保元에는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많은 이제마의 실제적인 治驗例이 자세히 나타나 있으며, 더불어 다른 의사들의 치료 경험들을 습득하여 체질에 따른 病證과 藥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마는 庚子年(1900)에 사망할 때까지 東醫壽世保元을 改草하였다. 東醫壽世保元에는 少陽人 荊防地黃湯에 대한 使用例⁴⁶⁾가 己亥年(63세) 11월 23일부터 庚子年(64세) 3월까지 임상경과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확인되는 가장 晩年の 醫藥經驗이다. 즉 이제마가 세상을 떠나기 6개월 前의 治驗例이다.

하지만 李濟馬가 四象人을 발견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단지 東醫壽世保元 醫源論⁴⁷⁾에서 李濟馬는 醫藥經驗이 있는 지 5, 6

천년 후에 태어나 前人의 述을 통하여 우연히 四象人 臟腑性理를 얻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이제마가 언제부터 四象人에 대한 概念이 醫學的으로 體系化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제마 最初의 醫藥經驗이 확인되는 시기는 39세 때이므로 적어도 39세 이전부터 醫藥에 대한 知識을 지니고 있었지만, 四象醫學의 體系는 완전하지 못했다고 이제마가 인정하고 있다. 또 이제마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攝身했다고 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므로, 그의 나이 46세 때 쓰여진 格致藥 獨行篇과 東武遺稿 중의 教子平生箴을 보면 四象人의 心慾에 대한 개념이 비로소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마가 四象醫學을 體系化시킨 시기는 46세 무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李濟馬의 著書

저서로는[閩幽抄]⁴⁸⁾ [濟衆新編] [廣濟說] [格致藥] [東醫壽世保元] [東武遺稿] 등이 있다.

[廣濟說]은 양생의 교훈을 가르친 것인데 동의수세보원 후편에 첨부되어 있다.

[濟衆新編]도 도덕에 관한 글이며 五福論, 勸壽論, 知行論으로 구성되며, [格致藥] 부록으로 전해진다.

[格致藥]는 東武 도덕학의 대표적인 저술로 儒略, 反誠箴, 獨行篇의 세편으로 되어있다. 格致藥은 필사본으로 전해지다가 1940년(昭和 15년) 韓斗正이 咸興府에서 발행했다. 이 후로 格致藥 뒤쪽에 [濟衆新編]과 [遺藥抄]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전해진다.

[東醫壽世保元]은 1894년(甲午年)에 처음 지어졌으나, 이후 임상경험을 축적하여 1900년(庚子年)까지 性命論⁴⁹⁾부터 太陰人論까지 改草하였고,

東武가 사망한 후 그의 門徒(金永寬 等)들에 의해 1901년에 처음으로 新·舊本을 합하여 栗洞契에서 출판하였다. 이 책은 四象醫學의 원전으로 병을 다스리는데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체질에 따른 예방의학적 養生을 강조하고 있다. 동의수세보원은 을동계에서 1901년 처음 출판된 이후 여러 차례의 출판이 이루어졌다.(표 5)

그리고 최근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소장본인 [東武遺稿]가 발견⁵⁰⁾되었는데 여기에는 이미 격치고 부록으로 전해지고 있는 濟衆新編과 遺藥抄 이외의 遺稿와 東武의 詩, 上疏文, 편지글, 遊覽을 통한 各道의 風俗이나 여행기록, 閩幽草, 外交論, 教子平生箴, 八卦箴叢論, 知風兆 및 後人이 기록한 李濟馬에 대한 追錄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책은 년기미상의 필사본으로 著者가 明記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으로 보아 東武의 著書임이 분명하다.

한편 中國에서 전해진 金九翊先生의 手抄本인 [東醫四象草本卷]⁵¹⁾도 李濟馬의 著書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⁵²⁾ 여기에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總 括

東武 李濟馬에 대해 여러 종류로 나타나 있는 기록들을 종합하여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표 6)

이제마는 全州李氏로 朝鮮 태조 이성계의 高祖인 穆祖의 둘째 아들인 安原大君의 19代孫이다. 할아버지는 忠源이며 아버지는 攀五로 進士를 지냈다. 이제마는 攀五의 長男이자 庶子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주모의 딸이며 慶州金氏로 알려져 있으나 자세한 기록이 없다. 이제마에게는 3명의 婦인이 있었고 슬하에 2男1女를 두었다. 長男(龍海)과 次男(龍水)은 열세 살의 나이 차이가 나며

(표 5) 東醫壽世保元 版本

版本	發行內容
甲午版(1894년, 東武 58歲)	東武가 漢南山中에서 癸巳(1893)年 7월 13일부터 시작하여 이듬해 甲午(1894)年 4월 13일까지 쓴 동의수세보원으로 현재 이제마의 原本은 전해지지 않는다.(일명 舊本이라 칭함)
庚子版(1900년, 東武 64歲)	東武가 甲午(1894)年에 東醫壽世保元을 쓰고 나서 乙未(1895)年에 下鄉한 後부터 庚子(1900)年까지 改草한 것으로 현재 이제마의 原本은 전해지지 않는다.(일명 新本이라 칭함) 東武 死後 출판된 책에서는 이 때 東武가 改草한 부분이 性命論부터 太陰人諸論까지 고쳤다고 하는 版本과, 醫源論부터 太陰人諸論까지 고쳤다고 하는 版本이 있다.
初版	1901년(光武 5年 辛丑 6月) 咸興 栗洞契에서 門人 金永寬 韓稷淵 宋賢秀 韓昌淵 崔謙鏞 魏俊赫 李燮恒등이 新·舊本을 모아 發行했다. 木活字本으로 四卷 二冊이다. 이 판본에는 李濟馬가 性命論부터 太陰人諸論까지 改草한 것으로 되어 있다.
再版	1911년(明治44년 9월) 崔冕甲 高敬必 金重瑞 李增謨 發行
3版	1913년(大正2년 7월 20일)
4版	1914년(大正3년 2월 28일) 현재 전해지는 東醫壽世保元의 序文은 李濟馬의 序文이 아니라 誠堂 韓敎淵이 序文을 적은 것이며 이 때가 바로 大正三年 上元月로 되어 있으므로 4版本부터 序文이 기록되어 출판되었다.
5版	1921년(大正10년 7월 10일) 京城 金容俊 發行
6版	1936년(中華民國25년 12월 25일) 北京에서 韓秉武등에 의해 發行
7版	1941년(昭和16년) 韓斗正이 편집(補遺方과 漢字解字와 解吐字를 기재) 保元契發行. 이 版本에는 李濟馬가 醫源論부터 太陰人諸論까지 改草했다고 되어 있다.

* 이후 한국에서는 보원계와 사상의학보급회를 중심으로 필사본 및 동사본을 통하여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현재 전해지고 있는 판본은 주로 4판본(1914년) 이후의 판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판본 계열의 판본⁵³⁾과, 7판본 계열의 판본⁵⁴⁾이 중심이 되어 출판되고 있다.

長男은 少陰人, 次男은 少陽人으로 전해진다. 이제마 死後에 次男이 保元局을 이어받아 경영했다고 한다.

이제마는 1837년(憲宗3년, 丁酉年) 陰 3月 19日 咸慶道 咸興에서 태어났다. 그에게는 특히 여러 종류의 이름이 있었는데 전주이씨 족보에는 이름

이 雙雲 또는 雙晉으로 되어있고, 號는 東武, 字는 懋平 또는 子明이고, 初諱는 濟馬라 하였다.

幼年期의 東武는 어려서부터 祖父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天性이 快活, 勇敢해서 個性을 굽히지 않았으며, 어려서부터 책을 읽어 周易과 諸子百家 兵書를 섭렵하였다.

(丑6) 東武李濟馬年表

나이	年度	歷史	日常史	學問	醫學
1	1837(丁酉)	憲宗 3年	咸興 誕生(3月19日)		
7	1843(癸卯)		伯父直長公에게 글을 배우기 始作		
13			家出		
20	1856(丙辰)	哲宗7年	義州富人 洪氏집에서 독서함		
23	1859(己未)	哲宗 10	長男 龍海 出生		
30	1866(丙寅)	丙寅洋擾		明善錄 接觸(推定)	
36	1872(壬申)	高宗 9年	次男 龍水 出生		
39	1875(乙亥)	高宗 12	武科 등용		亡陰證에 六味地黄湯 投與
40	1876(丙子)	高宗 13	武衛別選 軍官入衛		
44	1880(庚辰)			儒略 執筆 始作	
45					
46	1882(壬午)	壬午軍亂		獨行篇 完成	
47-49					
50	1886(丙戌)	高宗 23	鎭海縣監		
51-53					
54	1890(庚寅)	高宗 27	遷任上京	儒略 完成	
55-56					
57	1893(癸巳)			反誠箴 完成	東醫壽世保元 始作(7/13)
58	1894(甲午)	甲午更張	漢南山中에서 東醫壽世保元 畢書		東醫壽世保元 完成(4/13)
59	1895(乙未)	乙未事變 (단발령)	故鄉 下鄉	遺藁抄(11/24)	
60	1896(丙申)	崔文煥의 亂	崔文煥의 亂 平定 正三品 通政大夫 宣諭委員		
61	1897(丁酉)	大韓帝國 (光武元年)	高原郡守	濟衆新編(五福論 勸壽論 知行論)	
62	1898(戊戌)		모든 官職에서 물러남		
63	1899(己亥)		保元局 경영		亡陰證에 荊防地黄湯投與 (己亥11/23-庚子3月)
64	1900(庚子)	京仁線 開通	卒 (9月 21日)		東醫壽世保元改草 (性命論-太陰人篇)

7세 때(1843년, 癸卯) 伯父 直長公에게서 通史를 배웠으며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하였다.

13세 때(1849년, 己酉) 鄉試에서 壯元하였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함께 사망했다. 그 해 이제마는 집을 떠났다.
특히 이후 청장년기의 생활은 불명확한데 그는 고향을 등진 후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견문을 넓혔다.

18세 때 (1854년, 甲寅)소련을 여행했으며

20세 경 (1856년, 丙辰)에 만주 등지로 방랑생활을 하던 중 義州富人 洪草堂의 書樓에서 內外의 珍書를 博覽하였다.

23세 때(1859년, 己未) 長男 龍海가 출생하였고

30세 前後에 咸興에서 定平으로 가는 客舍에서 芸菴 韓錫地가 著述한 '明善錄'을 얻었으며, 그 후 그를 매우 尊敬하여“芸菴은 朝鮮의 第一人者”라 稱했다고 한다.

36세 때(1872년, 壬申) 次男 龍水가 출생하였고

39세 때(1875년, 乙亥) 武科에 등용되고, 少陽人 六味湯의 治驗例가 동의수세보원에 나타나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醫藥經驗이 39세 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0세 때(1876년, 丙子) 武衛別選軍官으로入衛하여 武威將을 거쳤다.

44세 때(1880년, 庚辰) 格致叢 儒略篇을 執筆하기 시작하여

46세 때(1882년, 壬午) 格致叢 獨行篇을 著述했고,

50세 때(1886년, 丙戌) 鎭海縣監으로 임명되었고,

54세 때(1890년, 庚寅) 格致叢 儒略篇을 完成하였으며, 遞任上京하여

57세 때(1893년, 癸巳) 格致叢 反誠箴篇을 著述하고, 7月 13일부터

58세 때(1894년, 甲午) 4月 13日까지 漢南山中에서

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하고

59세 때(1895년, 乙未) 母親(嫡母)病患으로 함흥으로 下鄉하였고, 그해 11월에 遺藥抄를 著述하고,

60세 때(1896년, 丙申) 母親喪중에 咸興地方의 混亂을 惹起한 崔文煥의 騷擾를 平定하였으며, 正三品 通政大夫 宣諭委員에 除受되었고

61세 때(1897년, 丁酉) 高原郡守에 임명되었으며, 五福論 勸壽論 知行論등 濟衆新編을 저술하였다.

62세 때(1898년, 戊戌)모든 官職에서 사퇴하였고 이후 고향에 돌아와 咸興 萬歲橋 부근에 保元局이란 韓醫局을 개설하여 환자들을 보살피다가 1900年(庚子) 陰 9月 21日一에 64歲로 一生을 마감할 때까지 東醫壽世保元을 改草하였다.
以上이 東武 李濟馬에 관하여 나타난 記錄들이 다.

V. 結 論

東武 李濟馬의 家系와 生涯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이제마는 全州李氏 安原大君의 19代孫으로 1937年(憲宗 3年, 丁酉年) 咸興에서 태어나 1900年(庚子年) 고향에서 사망했다.
2. 이제마는 어려서부터 다양한 책을 공부하였고 전국 각지와 滿洲, 蘇聯 등을 遊覽하며 見聞을 넓혔으나 정확한 師承關係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3. 이제마의 醫藥經驗은 39세 이전부터 있었으나 46세 무렵부터 四象人에 대한 心慾과 四象醫學에 대한 體系가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제마의 삶은 자신에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응적 삶이라기보다는, 역경을 감수하면서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과 思想

을 펼치려고 하는 적극적 삶이라고 볼 수 있다.

5. 이제마의 이러한 삶의 태도가 기존의 의학체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체계의 四象醫學을 誕生시킨 밑바탕이 되었다고 하겠다.

** 後記 : 東武 李濟馬 선생님의 생애와 가계를 정리하겠다고 시작한 지도 3년이 다되어 갑니다. 부족한 자료를 찾아 해메는 가운데 구전으로 전해들은 동무에 대한 신비함이 사라지고 자신의 삶에 투철한 새로운 동무를 만났습니다. 아쉬운 점은 崔文煥의 亂에 대한 자료가 너무 많아 편집 과정에서 삭제된 점입니다. 특히 한 가문의 계보를 옮기면서 본의 아니게 후손들에게 뿔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지없으며 삼가 머리 숙여 양해를 구합니다.

參 考 文 獻

1. 大韓民國文敎部國史編纂委員會編:關東倡義錄,大韓民國 文敎部 國史編纂委員會 發行 韓國史料叢書 第三十, 서울,1984
2. 독립신문사 : 독립신문 28호, 건양원년(1896) 6월 9일 서울 조선
3. 동아일보사 : 동아일보,1985년 1월21일 6면
4. 未詳 : 전주이씨 안원대군파 족보사본, 년기 편자 미상
5. 未詳 : 東武遺稿, 필사본, 년기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008022)
6. 朴爽彦 : 東武公의 逸話, 대한한학회지 통권35호,1971
7. 朴爽彦 : 東醫四象大典, 醫道韓國社, 서울, 1977, 筆者 序文중에서
8. 延邊民族醫藥研究所編 : 조선민족사상의학, 여강출판사, 서울, 1992
9. 延邊朝鮮族自治州民族醫藥研究所編 : 朝醫學, 第1冊, 四象醫學論, 延邊, 1985
10. 李能和 : 朝鮮 名人傳 券2(李濟馬), 조선일보사 출판부, 서울, 1939
11. 李暎洙編 : 全州李氏 安原大君派 璿源續譜, 대전, 1968, 국립중앙도서관장서(古2518-系62-1D-C1)
12. 李鳳雲編 : 全州李氏 安原大君派譜, 大耕出版社, 대전, 1991
13. 李守鉉編 : 全州李氏 安原大君派譜, 영인본, 서울, 1978
14. 李昇烈編 : 全州李氏 安原大君派 璿源續譜, 全州李氏派譜所, 咸北 明川, 1924
15. 李龍鎬編 : 全州李氏 安原大君派譜, 영인본, 서울, 1979
16. 李乙浩 : 四象醫學說批判, 대한한의학회보 통권13호, 1964
17. 李乙浩 : 茶山學의 理解(東武 四象說), 玄巖社, 서울, 1979
18. 이이화 : 이야기 인물한국사1, 한길사, 서울, 1993
19. 李濟馬 : 東醫壽世保元, 여강출판사, 서울, 1992, 머리말 중에서
20. 李濟馬 : 東醫壽世保元, 행림출판, 서울, 1986
21. 李濟馬 著, 尹完重 編 :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 信一文化社, 서울, 1972
22. 李濟馬 著, 韓斗正 編 : 格致叢, 韓國弘方, 咸興, 1940
23. 李宗鉉編 : 全州李氏 安原大君派 璿源續譜 : 咸興安原大君派譜所, 1930
24. 李澤正編 : 全州李氏 安原大君派譜, 元山, 1938,
25. 鄭遇悅 : 東武 李濟馬의 醫學思想, 원광한의학, 제1권 1호, 1991

26. 중앙일보사 : 시사월간 윈(WIN), 1995년 9월 호
27. 崔南善 : 時文讀本 第4卷 5 李東武(六堂崔南善全集 第8卷), 玄岩社, 서울, 1973
2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29. 한국사상편찬위원회편 : 한국사상 제4집, 일신사, 서울, 1962
30. 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 韓國人名大事典, 新丘文化社, 서울, 1989
31. 洪淳用·李乙浩 : 四象醫學原論, 행림출판, 서울, 1985
32. 洪淳用 : 東武 李濟馬傳, 대한한의학회보, 통권 11호, 1964
33. 洪淳用 : 東武 李濟馬傳(二), 대한한의학회보, 통권 12호, 1964
34. 洪淳用 : 東武의 生涯와 思想, 동양의학 9 : 3 (26호), 1983
- 85, pp393-402
- 李能和 : 李濟馬(朝鮮名人傳 권2)조선일보사 출판부, 서울, 1939 pp340-346
- 崔南善 : 時文讀本제4권, 李東武(육당최남선전집제8권), 현암사, 서울, 1973, pp558-559 등이 이제마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다.
-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91, pp222-223
한국인명대사전 편찬실 : 한국인명대사전, 신구문화사, 서울, 1989, p722
- 6) 全州李氏 始祖인 翰의 17代孫인 穆祖의 둘째아들로始祖로부터 18代孫임. 穆祖는 太祖 이성계의 高祖로 追尊王임.
- 7) 洪순용은 安原大君의 20代孫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잘못된 것이다.
- 8) 全州李氏 安原大君派譜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朝58-33-268), 원산, 1938
- 9) 全州李氏 安原大君派璠源續譜 : 李昇烈刊編, 全州李氏 續譜所, 咸北 明川, 1924, 1冊 (국립중앙도서관 한-58-가17)
全州李氏 安原大君派璠源續譜 : 李宗鉉刊編, 咸興安原大君派譜所, 1930, 5卷5冊 (국립중앙도서관 한-58-가33-162)
全州李氏 安原大君派譜 : 李澤正編, 元山印刷所, 1938, 25張 (국립중앙도서관 한-58-가33-268)
全州李氏 安原大君派譜 : 李守鉉編, 영인본, 서울, 1978, 1冊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系62-55)
全州李氏 安原大君派譜 : 李龍鎭編, 영인본, 서울, 1979, 1冊 (국립중앙도서관 古2618-系62-59)
全州李氏 安原大君派譜 : 李鳳雲發行, 大耕出版社, 대전, 1991 등 현존하는 대다수의 안원대군파보에 이제마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각 주

- 1) 1880년(庚辰)부터 1893년(癸巳)에 걸쳐 東武가 지은 대표적인 著書로 儒略, 反賊箴, 獨行篇으로 구성되어 있음. 東武 사망후 필사본으로 전해지다가 1940년 함흥에서 出版된 이후부터 濟衆新編과 遺業抄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전해지고 있다.
- 2) 東武가 1894년(甲午)에 처음 저술함. 이후 1900년(庚子)에 사망할 때까지 改草한 醫書. 死後에 新·舊本을 모아 그의 門徒들을 중심으로 1901년 栗洞契에서 처음 出版됨.
- 3) 太陽人 臟理는 肺大肝小, 少陽人 臟理는 脾大腎小, 太陰人 臟理는 肝大肺小, 少陰人 臟理는 腎大牌小임.
- 4) 朴奭彦 : 東武公의 逸話, 대한한의학회지 통권13호, 1964, pp7-8
洪淳用 : 東武의 生涯와 思想, 동양의학 9 : 3(26호), 1983, pp4-9
洪淳用 : 東武 李濟馬傳, 대한한의학회지 통권 11호, 1964, pp3-4
洪淳用·李乙浩 : 四象醫學原論, 행림출판, 서울, 1985, p
- 5) 李龍鎭編 : 全州李氏 安原大君派 璠源續譜, 대전, 1968, 1冊 62張(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2518-系62-1D-C1).
- 6) 洪순용·이을호 : 사상의학원론, 행림출판, 1985, p

p393-394

홍순용 : 동무 이제마전, 대한한의학회보 통권 11호, 1964, pp3-5

홍순용 : 동무의 생애와 사상, 동양의학 9 : 3(26호), 1983, p4-9

14) 東武遺稿 : 필사본, 년기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008022)로 著者が 明記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상 東武의 著書임이 분명하다. 여기에는 이미 전해지고 있는 濟衆新編과 遺稿抄 이외의 遺稿와 東武의 詩, 上疏文, 편지글, 遊覽을 통한 各道의 風俗이나 旅行記錄, 聞幽草, 外交論, 教子平生箴, 八卦箴總論, 知風兆 및 後人이 쓴 李濟馬에 대한 追錄 등이 담겨져 있다.

15) 李能和는 李濟馬傳에서 祖父 忠源이 일찍 進士를 지냈다고 했지만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李能和 : 朝鮮名人傳 卷2, 조선일보사 출판부, 1939, PP340-46

16) 東武遺稿 中の 追錄에 있는 내용임.

17) 홍순용, 이을호 : 사상의학원론, 행림출판, 1985, pp393-402

홍순용 : 동무의 생애와 사상, 동양의학 9 : 3 (26호), 1983, pp4-9

이이화 : 이야기 인물한국사1, 한길사, 1993, pp332-339

18) 東武가 1896년에 작성한 鎮撫時上疏의 내용중에 "臣家有嫡母 年滿七十 日薄西山 私情憫迫 至于乙未二月 決意下鄉則 期年七月 老母卒世"라고 되어 있는 점과, 전주이씨 족보에 攀五의 原婦人이 乙未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嫡母로 봄이 타당하다.

19) 이제마 족보사본(송일병 교수님 소장본)에는 原婦人만 기록되어 있으나, 東武遺稿에는 3명의 婦人이 기록되어 있다.

20) 홍순용은 동무의 생애와 사상에서 이제마의 長男이 일찍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족보사본에는 2남 3녀를 두었고 64세 까지 생존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長男(龍海)의 둘째 아들(鎮顏)이 次男(龍水)에게로 繼子되어 있는 점을 보면 장남이 일찍 죽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1) 東武遺稿 중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東武가 자식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이며 1882(壬午)年 東武 46세 때 쓴 글이다.

22) 홍순용·이을호 : 사상의학원론, 행림출판, 서울, 1985, p394

홍순용 : 동무의 생애와 사상, 동양의학 9 : 3(26호), 1983, pp4-9

홍순용 : 동무 이제마전, 대한한의학회보 통권 11호, 1964, pp3-5

23) 東武遺稿 중에 있는 내용으로 作成時期는 不明이다.

24) 東武遺稿 중에 있으며 辛未(1871)年 동무 35세 때 쓴 글로 당시 보고 들은 洋人들의 文物을 기록하고 있다.

25) 주 22)와 동일함.

26) 할아버지 忠源은 正祖 丁酉年(1789) 十二月에 태어나 憲宗 己酉年(1849) 十二月에 사망했으며, 아버지 攀五는 純祖 壬申年(1812) 正月에 태어나 憲宗 己酉年(1849) 四月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다.

27) 홍순용·이을호 : 사상의학원론, 행림출판, 서울, 1985, pp393-402

홍순용 : 동무의 생애와 사상, 동양의학 9 : 3(26호), 1983, pp4-9

이능화 : 조선명인전 권2(이제마), 조선일보사출판부, 서울, 1939, pp340-346

이이화 : 이야기 인물한국사1(이제마), 한길사, 서울, 1993, pp332-339

최남선 : 時文讀本 第4卷 5 李東武(六堂 崔南善 全集 第8卷), 현암사, 서울, 1973, pp558-559

28) 홍순용 : 동무 이제마전, 대한한의학회보 통권 11호, 1964, pp3-5

이이화 : 이야기 인물한국사1, 한길사, 서울, 1993, pp32-339

29) 東武遺稿 中の 내용으로 辛巳(1881)年 동무 45세 때 元山에 들어와 있는 日本人들과의 대화 내용이다. 당시 조선은 1879년에 이미 元山港을 開港하였고 1880년에는 20개월 후에 仁川港을 開港하기로 합의 해 놓은 상태였다.

30) 홍순용은 金箕陽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능화는 金基錫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東武遺稿 中の 鎮撫時上疏를 보면 金箕錫으로 되어있다.

31) 독립신문 28호 : 건양원년 육월 구일 기사에 淸문환에 대한 내용이 있다.

32) 홍순용 : 동무의 생애와 사상, 동양의학 9 : 3(26호), 1983, pp3-5

이능화 : 조선명인전 권2(이제마), 조선일보사 출판부, 서울, 1939, pp340-346

33) 이이화 : 이야기 인물한국사1, 한길사, 서울, 1939, p332-339

大韓民國 文教部 國史編纂委員會編(閔龍鎬 著) : 關東 倡義錄, 大韓民國 文教部 國史編纂委員會 發行 韓國 史料叢書 第三十, 서울, 1984, p20, 24, 32, 55, 66

34) 동아일보 : 1985년 1월21일 6면

35) 본 논문의 편집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자료의 분량이 너무 많아 부득이 하게 삭제하게 되었으며 다음 기회에 별도로 발표할 계획임.

36) 이제마 : 동의수세보원, 행림출판, 서울, 1986. pp83

- 37) 이제마 : 동의수세보원, 행림출판, 서울, 1986, p129
- 38) 이능화 : 조선인명전 권2, 조선일보사 출판부, 서울, 1939, pp340-346
- 39) 박석언 : 동무공의 일화, 대한한의학회지 통권35호, 1971, pp7-8
- 40) 홍순용 : 동무의 생애와 사상, 동양의학 9 : 3(26호) 1983. pp4-9
- 41) 3·1운동 당시 33인 중의 한 사람.
- 42) 이제마 62세 때이다.
- 43) 韓國思想編纂委員會 : 韓國思想 第4輯, 日新社, 서울, 1962, p148-149
- 44) 홍순용은 漢醫局으로 표현하였으나 저자가 韓醫局으로 표기함.
- 45) 홍순용 · 이을호 : 사상의학원론, 행림출판, 서울, 1985, p402
홍순용 : 東武 李濟馬傳(二), 대한한의학회보 통권 12호, 1964, pp16-18
이이화 : 이야기 인물한국사1, 한길사, 서울, 1993, pp332-339
- 46) 이제마 : 동의수세보원, 행림출판, 서울, 1986, p84-86
- 47) 이제마 : 동의수세보원, 행림출판, 서울, 1986, p26
- 48) 홍순용은 關幽抄가 제자들의 훈화를 목적으로 지은 것이라 하고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東武遺稿 중에 關幽草라는 이름으로 들어 있다.
- 49) 東醫壽世保元の 版本에 따라 醫源論부터 改草했다는 경우도 있다. 初版本(1901년 발행)에는 性命論부터 改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性命論부터 改草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醫源論부터 改草되었다고 처음 제시한 韓斗正계열의 판본에는 다른 판본에는 없는 補遺方 등의 자료가 들어있어 그 내용을 그냥 무시할 수 없는 바이므로 향후 版本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50) 박윤희 원장의 공이 크다.
- 51) 延邊朝鮮族自治州民族醫藥研究所 編 : 朝醫學 第1冊, 四象醫學論, 延邊, 1985, 附錄 p1-24
- 52) 중국·연변민족의학연구소 편 : 조선민족사상의학, 여강출판사, 서울, 1991, p23에서는 이제마의 저서를 東醫壽世保元, 格致藥, 東醫四象初本으로 주장하고 있다.
- 53) 李濟馬 著 : 東醫壽世保元, 행림출판, 서울, 1985와 같은 종류의 판본으로 출판되고 있음.
- 54) 李濟馬 著, 尹完重 編 :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 信一文化社, 서울, 1972와 같은 종류의 판본으로 출판되고 있음.